

우주에서 온 색채

The Colour Out of Space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2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4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Colour Out of Space" (1927,
"Amazing Stories" 9월호)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68236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4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아컴·미스카토닉 등 고유명사와 '저주받은 황야' 같은 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컴의 서쪽으로는 거친 언덕들이 솟아 있고, 도끼질 한 번 닿지 않은 울창한 숲이 계곡마다 깊게 들어앉아 있다. 나무들이 기괴한 각도로 기울어진 어둡고 좁은 골짜기들도 있는데, 그곳을 흐르는 가느다란 시냇물은 단 한 번도 햇빛을 머금어 반짝인 적이 없다. 완만한 경사지에는 오래된 바위 농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거대한 암벽 뒤편, 이끼 낀 낮은 오두막들은 마치 오래된 뉴잉글랜드의 비밀을 영원히 품고 있는 듯 침울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모두 비어 있다. 넓은 굴뚝은 허물어져 가고, 낮은 박공지붕 아래로 널빤지를 댄 벽면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갈 듯 위태롭게 부풀어 올라 있다.

옛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외지인들은 그곳에 살기를 꺼린다. 프랑스계 캐나다인도, 이탈리아인도 그곳에 정착하려 애썼으나 실패했고, 폴란드인들 역시 잠시 머물다 떠나갔다.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손에 잡히는 무언가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력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분 때문이다. 그곳은 상상을 자극하는 곳이 아니며, 밤이면 평온한 꿈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외지인들이 발길을 끊는 것이리라. 노인 애미 피어스조차 그 기묘했던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다 한들, 외지인들에게는 입을 떼지 않으니 말이다.

수년 전부터 정신이 다소 온전치 못했던 애미는, 그 기묘한 시절을 아직 기억하거나 혹은 그 시절에 대해 입을 여는 유일한 생존자다. 그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건, 그의 집이 아컴 근처의 탁 트인 들판과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언덕을 넘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길이 있었다. 지금의 저주받은 황야를 가로질러 곧게 뻗어 있던 길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을 찾지 않았고, 대신 남쪽으로 멀리 굽어지는 새 길이 놓였다. 되살아난 황무지의 잡초 사이로 옛길의 흔적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으며, 아컴 저수지가 만들어지며 골짜기 절반이 물에 잠기더라도 그 흔적 중 일부는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울창한 숲은 베어 나갈 것이고, 저주받은 황야는 푸른 물결 아래 깊이 잠들 것이다. 그 수면은 하늘을 비추고 햇살 아래 잔물결을 일으키겠지. 그러면 그 기이했던 시절의 비밀은 심해의 비밀과 하나가 될 것이다. 태고의 바다가 간직한 숨겨진 지식, 그리고 원시 지구의 모든 신비와도 하나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저수지 부지를 측량하러 언덕과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곳이 불길한 곳이라고 내게 말했다. 아컴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아컴은 마녀 전설이 가득한 아주 오래된 마을이었기에, 나는 그 '불길함'이라는 것이 할머니들이 수 세기 동안 아이들에게 속삭여 온 옛이야기 같은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저주받은 황야'라는 이름도 내게는 무척 기이하고 연극적으로 들렸다. 청교도 후손들의 민담에 어찌 저런 이름이 붙었을까 의아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쪽으로 뻗은 어둡고 뒤엉킨 골짜기와 비탈을 직접 마주한 순간, 나는 그곳에 깃든 태고의 신비 외에는 그 무엇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그 광경을 처음 본 것은 아침이었으나, 그곳에는 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나무들은 지나치게 뻣뻣하게 들어서 있었고,

나무줄기는 뉴잉글랜드의 여느 건강한 숲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으로 굵었다. 나무 사이사이 어둑한 길목에는 정적이 너무도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바닥은 축축한 이끼와 끝을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쌓인 부식물들로 인해 지나치게 폭신하고 부드러웠다.

탁 트인 벌판, 특히 옛길을 따라 늘어선 언덕에는 작은 농장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곳은 건물들이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어떤 곳은 한두 채만이 덩그러니 남았으며, 또 어떤 곳은 홀로 선 굴뚝이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지하실만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그곳을 지배했고, 덤불 속에서는 정체 모를 야생의 생물들이 은밀하게 바스락거렸다.

모든 풍경에는 불안함과 압박감이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마치 원근법이나 명암의 조화 중 무언가 핵심적인 요소가 뒤틀려 버린 듯, 비현실적이고 기괴한 기운이 감돌았다. 외지인들이 이곳에 머물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해가 갔다. 이곳은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살바토르 로사의 그림 속 풍경 같기도 했고, 공포설화에 실린 금기된 판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저주받은 황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넓은 계곡 아래에서 그곳을 처음 마주한 순간, 나는 직감했다. 그곳에는 오직 그 이름만이 어울렸고, 그 어떤 다른 이름도 그 풍경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시인이 오직 이 특정한 지역만을 보고 그 문구를 만들어낸 것만 같았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곳은 분명 화재가 휩쓸고 간 결과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왜 저 5에이

커의 회색 황무지에는 그 어떤 새로운 생명도 돌아나지 않는 것일까. 하늘을 향해 펼쳐진 그 땅은 마치 숲과 들판에 산성 액체가 떨어져 커다랗게 파먹은 구멍처럼 보였다. 황야는 오래된 도로를 기준으로 주로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도로 반대편까지 조금씩 침범해 들어와 있었다. 나는 그곳에 다가가는 것이 묘하게 꺼려졌고, 결국 업무상 반드시 그곳을 가로질러 지나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였다.

그 넓은 벌판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았다. 오직 고운 회색 먼지와 재만이 깔려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도 그것들은 전혀 흩날리지 않는 듯했다. 황야 근처의 나무들은 병들고 왜소했으며, 그 가장자리에는 죽은 나무 밑동들이 서 있거나 쓰러진 채 썩어가고 있었다. 서둘러 그 곁을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는 옛 굴뚝과 지하실의 무너진 벽돌과 돌무더기가 보였고, 버려진 우물의 검고 커다란 입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우물에서 피어오르는 고인 증기는 햇빛의 색깔을 기묘하게 뒤투어 놓았다. 그 너머로 길게 뻗은 어두운 숲길조차 황야와 비교하면 반가울 정도였다. 아컴 사람들이 왜 겁에 질려 속삭였는지 이제는 더 이상 의아하지 않았다. 근처에는 집도, 유적도 없었다. 아주 옛날이라 해도 이곳은 분명 외지고 쓸쓸한 곳이었을 것이다.

황혼이 내릴 무렵, 나는 그 불길한 장소를 다시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 남쪽의 굽이진 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가는 먼 길을 택했다. 나는 막연히 구름이라도 끼기를 바랐다. 머리 위로 끝없이 펼쳐진 깊고 푸른 허공을 마주할 때마다, 내 영혼 속으로 기묘한 겁심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나는 아침의 노인들에게 저주받은 황야에 대해 물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회피하며 중얼거리던 그 '기이한 시절'이라는 말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도 물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저 이 모든 미스터리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최근의 일이라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이 일은 결코 오래된 전설 따위가 아니었다. 증언하는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1880년대에 벌어진 일이었고, 한 가족이 실종되거나 몰살당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게리 노인 애미 피어스가 늘어놓는 미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충고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곧장 애미 피어스를 찾아 나섰다.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차기 시작하는 숲 초입,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오래된 오두막에 그가 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공포스러운 정도로 오래된 장소였다. 너무 오랜 세월을 버텨온 집 특유의, 쿼퀴하고 불쾌한 악취가 은은하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 끝에야 겨우 노인을 깨울 수 있었다. 조심스레 문가로 발을 옮기는 그의 모습에서,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히 느껴졌다. 그는 생각보다 기력이 쇠하지는 않았으나, 눈꺼풀이 기묘하게 처져 있었다. 헝클어진 옷차림과 하얀 수염은 그를 무척이나 초라하고 암울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에, 나는 차라리 공적인 용무가 있는 척 연기하기로 했다. 내가 측량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 지역에 대해 두리뭉치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덧 그는 아침에서 만난 그 어떤 이들 못지않게 대화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었다. 저수지 건설 예정지 근처에서 만났던 다른 시골뜨기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훗날 수몰될 수 마일의 숲과 농경지를 두고도 그는 전혀 항의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집이 새로 생길 호수의 경계 밖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분명 반발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내비친 감정은 오직 안도뿐이었다. 평생을 헤매며 살아온 저 어둡고 오래된 계곡들이 파멸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그는 안도하고 있었다. 그 계곡들은 이제 물 아래 잠기는 편이 나았다. 그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로는, 차라리 물 밑에 잠겨 있는 편이 더 나았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자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떨리는 오른손 검지로 무언가를 힘주어 가리키기 시작했다.

* * * * *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 횡설수설 이어지는 목소리가 굵히듯 속삭일 때마다, 한여름의 낮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 번이고 몸을 떨었다. 나는 이야기꾼이 횡설수설하며 길을 잃을 때마다 그를 붙잡아 세워야 했다. 교수들의 강의를 앵무새처럼 어렵פות이 기억해 내어 내뱉는 과학적 지식들을 간신히 이해할 수 있게 다듬어 주기도 했고, 논리와 개연성이 끊겨버린 빈틈을 메우기도 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정신

이 조금은 망가졌다는 사실도, 아컴 사람들이 그 저주받은 황야에 대해 입을 다무는 이유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해가 지기 전 서둘러 호텔로 돌아왔다. 탁 트인 별판 위로 별들이 떠오르는 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보스턴으로 돌아가 직을 내려놓았다. 울창한 숲과 비탈진 땅이 뒤엉킨 그 어둡한 혼돈 속으로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었다. 무너진 벽돌과 돌덩이들 곁에서 검은 우물이 깊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 회색빛 저주받은 황야를 다시 마주할 자신도 없었다.

이제 곧 저수지가 건설될 것이고, 그 오래된 비밀들은 물밑 깊은 곳에 영원히 잠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밤이 찾아온 그곳을 방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불길한 별들이 떠 있는 밤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그 누구도 내게 아컴의 새 수돗물을 마시라고 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늙은 애미 피어스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일은 운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마녀 재판이 끝난 이후로 이 지역에는 괴이한 전설조차 떠돌지 않았다. 설령 전설이 있었다 해도, 서부의 이 숲이 미스카토닉 강의 작은 섬만큼 두려운 곳은 아니었다. 그 섬에는 인디언들보다도 훨씬 오래된 기묘한 돌 제단이 있었고, 그 곁에서는 악마가 권좌를 차지하고 있었다고들 했다. 이 숲은 귀신이 나오는 곳도 아니었으며, 그 기묘한 황혼의 풍경이 공포로 다가온 적도 없었다. 그 이상한 날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날, 정오의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떠올랐고, 허공에서는 폭발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숲 깊은 골짜기에서는 연기 기둥이 솟구쳤다. 밤이 되자 아침 전체에는 하늘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 바위는 네이험 가드너의 집 우물 옆 땅속에 박혀버렸다고 했다. 그 집은 훗날 저주받은 황야가 될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비옥한 정원과 과수원에 둘러싸인, 깔끔하고 하얀 네이험 가드너의 집 말이다.

네이험은 그 돌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려 마을로 내려왔고, 오는 길에 애미 피어스의 집에 들렀다. 당시 마흔 살이었던 애미의 머릿속에는 그 기이한 일들이 아주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미스카토닉 대학교에서 온 세 명의 교수와 함께 길을 나섰다. 교수들은 미지의 성계에서 온 기이한 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떠났는데, 애미 일행은 네이험이 왜 전날 그 돌을 그렇게 크다고 말했는지 의아해했다.

네이험은 앞마당의 오래된 우물 펌프 근처, 땅이 갈라지고 풀이 검게 탄 곳 위에 솟아 있는 커다란 갈색 언덕을 가리키며 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자라는 교수들은 돌이 줄어들 리 없다고 답했다. 돌의 열기는 끈질기게 남아 있었고, 네이험은 밤마다 돌이 희미하게 빛났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지질학용 망치로 돌을 두드려 보았으나, 돌은 이상할 정도로 무른 상태였다. 사실 그 돌은 거의 점토처럼 말랑거릴 만큼 부드러웠다. 교수들은 돌을 깎아내는 대신 아예 파내다시피 하여, 검사를 위해 대학으로 가져갈 표본을 채취했다. 그 작은 조각

조차 좀처럼 식지 않았기에, 교수들은 네이험의 주방에서 빌려온 낡은 양동이에 표본을 담았다.

돌아오는 길에 교수들은 휴식을 취하려 애미의 집에 들렀다. 피어스 부인이 그 조각이 점점 작아지더니 양동이 바닥을 태우고 있다고 말하자, 교수들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돌은 크지 않았지만, 어쩌면 교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을 가져간 것일지도 몰랐다.

그다음 날—이 모든 일은 1882년 6월에 일어났다—교수들은 다시 한번 커다란 흥분에 휩싸여 떼를 지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애미의 집을 지나며 그 표본이 얼마나 기이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유리 비커에 담자마자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지 그에게 들려주었다. 비커마저 통째로 사라져 버린 탓에, 현자들은 그 기묘한 돌이 규모와 친화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논쟁을 벌였다.

그 돌은 질서 정연한 실험실 안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 숯불 위에서 가열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갇혀 있던 가스조차 나오지 않았다. 붕사 비드 실험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산소-수소 토치로 가열해도 어떤 온도에서든 전혀 휘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증명되었다. 모루 위에서는 매우 잘 퍼지는 성질을 보였고, 어둠 속에서는 그 빛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

돌은 좀처럼 식을 줄을 몰랐고, 이 때문에 대학 전체가 실질적인 흥분 상태에 빠졌다. 분광기 앞에서 가열했을 때, 알려진 정상적인 스펙트럼에서는 볼 수 없는 빛나는 띠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떠들어댔다. 새로운 원소라느니, 기이한 광학적 특성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이는 과학자들이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을 때 흔히 내뱉는 말들이었다.

그 물질은 뜨거웠지만, 그들은 적절한 시약들을 갖추어 도가니 안에서 온갖 시험을 거쳤다. 물을 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염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질산과 심지어 왕수조차 그 뜨겁고도 난공불락인 표면 위에서 그저 치익 소리를 내며 튀어 오를 뿐이었다. 애미는 이 모든 과정을 떠올리는 데 애를 먹었지만, 내가 일반적인 사용 순서대로 시약들을 나열하자 몇몇 용매를 알아차렸다. 암모니아와 가성소다, 알코올과 에테르, 구역질 나는 이황화탄소와 그 외 수많은 시약이 동원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질의 무게는 꾸준히 줄어들었고 파편의 열기도 조금씩 식어가는 듯 보였으나, 용매의 상태를 보아서는 그 물질이 용매에 녹아들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금속이라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선 자성을 띠고 있었다. 게다가 산성 용매에 담근 후에는 운철에서나 발견되는 비드만스테텐 구조가 희미하게 나타나기까지 했다. 열기가 상당히 가라앉은 뒤에는 유리 용기를 사용해 시험을 이어갔다. 작업 도중 원본 파편에서 떼어낸 모든 조각들도 유리 비커 안에 함께 넣어두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조각들과 비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들이 놓아두었던 나무 선반 위에는 오직 검게 그을린 자국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교수들은 애미 피어스의 집 문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애미는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별에서 온 돌덩이, 그 기괴한 전령을 보러 나섰다. 이번에는 아내도 동행하지 않았다. 그 물체는 이제 분명히 크기가 줄어들어 있었다. 신중한 성격의 교수들조차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우물 근처에 놓인 갈색 덩어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덩어리 주변은 땅이 움푹 패인 곳을 제외하면 모두 텅 빈 공간이었다. 어찌만 해도 지름이 7피트는 족히 되었으나, 이제는 5피트도 채 되지 않았다. 물체는 여전히 뜨거웠다. 현자들은 망치와 정을 이용해 더 크고 새로운 조각을 떼어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표면을 살폈다. 이번에는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 작은 덩어리를 떼어내자, 그 속을 채운 물질이 완전히 균일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 * * *

그들은 물질 속에 박혀 있는, 거대한 색깔 구체의 일부분처럼 보이는 것을 파헤쳐냈다. 그 색채는 운석이 내뿜는 기이한 스펙트럼의 띠들과 닮아 있었으나,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그것을 색채라고 부른 것조차 겨우 비유를 빌린 것에 불과했다. 표면은 윤기가 돌았고, 가볍게 두드려 보니 금방이라도 깨질 듯하면서도 속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교수 중 한 명이 망치로 힘껏 내리치자, 그것은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내며 터져 나갔다. 하지만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구멍이 뚫림과 동시에 그 존재의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 자리에는 지름이 약 3인치 정도 되는 텅 빈

구형의 공간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둘러싼 물질이 점차 삭아 없어지면, 이와 같은 구체들이 더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추측은 헛수고였다. 조사단은 구체를 더 찾아보려고 땅을 파보았으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새로 채취한 표본을 챙겨 다시 떠났다. 하지만 그 표본 역시 이전 것만큼이나 연구실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 표본은 거의 가소성 물질처럼 형태가 변했고, 열과 자성을 띠었으며, 희미한 빛을 내뿜었다. 강한 산성 용액 속에서는 온도가 약간 내려갔고, 스펙트럼은 정체를 알 수 없었다. 공기 중에 두면 서서히 소멸해 버렸으며, 실리콘 화합물과 접촉하면 서로를 파괴하며 녹아내렸다. 그러나 이 모든 특성을 제외하면,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실험을 마친 뒤, 대학의 과학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이 물질의 정체를 규명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것은 지구상의 그 무엇도 아니었다. 거대한 외부 세계에서 흘러들어온 파편이었다. 그렇기에 그것은 외부 세계의 성질을 품고 있었으며, 외부 세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뇌우가 몰아쳤다. 다음 날 교수들이 네이험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뼈아픈 실망뿐이었다. 그 둘은 자성을 띠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이한 전기적 성질까지 지녔던 모양이다. 네이험의 말에 따르면, 그 둘은 마치 번개를 집요하게 끌어당기기라도 하듯 벼락을 불러모았다. 농부는 한 시간 동안 무려 여섯 번이나 번개가 앞마당의 고랑을 내리치는 것을 목격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래

된 우물 펌프 옆에 흙더미가 반쯤 메워진 채, 울퉁불퉁하게 파인 구덩이만이 남았다. 땅을 파보았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과학자들은 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패는 완벽했다. 교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연구실로 돌아가 납 상자에 조심스레 담아두었던, 사라져가는 파편을 다시 시험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파편은 일주일 만에 소멸했고, 그동안 그 무엇도 유의미한 결과로 얻어내지 못했다. 파편이 사라진 뒤에는 그 어떤 잔해조차 남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자 교수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깨어 있는 눈으로 그 기이한 흔적을 보았던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심연의 구렁 너머에서 온, 다른 우주와 다른 물질, 다른 힘, 그리고 다른 존재가 보내온 고독하고도 기괴한 메시지였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아컴의 신문들은 대학 측의 후원을 등에 업고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사들은 네이험 가드너와 그의 가족을 인터뷰하기 위해 기자들을 파견했다. 보스턴의 일간지 중에서도 적어도 한 곳은 기사를 보냈고, 덕분에 네이험은 순식간에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쉰 살쯤 된 마르고 인자한 인상의 사내였다. 그는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함께 계곡의 평화로운 농가에서 살고 있었다. 네이험과 애미는 서로 자주 왕래했고, 그들의 아내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애미는 네이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네이험 자신도 자기 집이 이토록 주목받는 것을 내심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그 운석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다.

그해 7월과 8월은 무척 더웠다. 네이힘은 채프먼 개울 건너편에 있는 10에이커 규모의 목초지에서 건초를 베느라 땀을 흘렸다. 덜컹거리는 수레가 어둑한 길 사이로 깊은 바퀴 자국을 남겼다. 평소보다 노동이 훨씬 고단하게 느껴졌고,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했다.

이윽고 과실이 익고 수확할 때가 찾아왔다. 배와 사과가 서서히 익어갔고, 네이힘은 자신의 과수원이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열매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거대하게 자라났으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윤기마저 흘렸다. 수확량이 워낙 엄청날 것 같아 나중을 대비해 추가로 통을 주문할 정도였다.

하지만 열매가 익어갈수록 참담한 실망감이 밀려왔다. 겉보기에는 그토록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나, 정작 단 한 입조차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배와 사과의 달콤한 풍미 속에는 어느샌가 은밀한 쓴맛과 메스꺼움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주 조금만 베어 물어도 금세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멜론과 토마토도 마찬가지였다. 네이힘은 자신의 농작물 전체를 망쳤다는 사실을 비통하게 깨달았다.

사건의 인과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그는 윤석이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단정 지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다른 농작물 대부분은 길가 언덕 위쪽 밑에 심겨 있어 무사하다는 사실에 하늘의 은총을 느꼈다.

겨울은 일찍 찾아왔고, 매서운 추위를 동반했다. 애미는 평소보다 네이험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그가 부쩍 근심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의 가족들 역시 말수가 줄어든 듯 보였다. 교회에 가거나 마을의 여러 모임에 참석하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토록 침울하고 냉담한 분위기가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족 모두가 가끔 몸이 좋지 않다거나,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말을 내뱉을 뿐이었다.

네이험 본인이 직접 입을 열었을 때가 가장 명확했다. 그는 눈 위에 찍힌 어떤 발자국들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다고 말했다. 그것은 붉은 다람쥐나 흰 토끼, 여우가 남긴 평범한 겨울 발자국이었다. 하지만 근심에 싸인 농부는 그 발자국들의 형태와 배열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다람쥐나 토끼, 여우의 신체 구조나 습성에서 나타나야 할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애미는 네이험의 이런 이야기를 별 관심 없이 듣고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클라크스 코너스에서 돌아오던 길에 썰매를 몰고 네이험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달빛이 밝게 비치던 밤이었다.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길을 가로질러 뛰어갔는데, 그 토끼의 도약 거리가 애미나 말에게나 지나치게 길게 느껴졌다. 실제로 말은 고삐를 꽉 잡아 멈춰 세우자 거의 겁에 질려 달아날 뻔했다.

그날 이후 애미는 네이험의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가드너네 집 개들이 매일 아침 왜 그렇게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알고 보니 개들은 짚을 기운조차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다.

2월 어느 날, 메도우 힐에서 온 맥그리거 가의 형제들이 들쥐를 잡으러 사냥을 나갔다. 그들은 가드너 가의 농장 근처에서 아주 기이한 낯한 마리를 잡았다. 그 짐승은 몸의 비율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고, 얼굴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쥐에게서 본 적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겁에 질려 그놈을 즉시 내팽개치고 달아났다. 덕분에 그 괴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늘어놓는 괴기한 소문으로만 전해질 뿐이었다. 하지만 네이험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말들이 겁을 먹고 날뛰는 현상은 이제 누구나 인정할 만큼 명백해졌고, 속삭이듯 번져가는 전설의 불씨는 빠르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네이험 가드너의 집 주변은 다른 곳보다 눈이 훨씬 빨리 녹는다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다. 3월 초, 클라크스 코너스에 있는 포터네 잡화점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경외감 섞인 토론이 벌어졌다. 그날 아침, 스테판 라이스가 가드너의 집 앞을 지나가다 길 건너 숲가 진흙 속에서 솟아오른 스텝크 양배추를 발견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토록 거대한 식물은 전례가 없었으며, 그 색채 또한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다. 식물의 형태는 괴상하기 짝이 없었고, 스테판이 탄 말은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 기이하게 자라난 식물을 보려고 사람들이 너댓 명씩 차를 몰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저런 식물은 건강한 세상에 결

코 돌아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가을에 맺혔던 불길한 열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네이험의 땅에 독이 스며들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원인이 운석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에서 온 학자들이 그 돌을 얼마나 기묘하게 여겼는지 기억하고 있었기에, 몇몇 농부들은 그들에게 직접 이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들은 네이험을 찾아갔다. 하지만 괴담이나 민담 따위를 좋아하지 않는 그들은, 눈앞의 상황을 두고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으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식물들이 확실히 기이하긴 했으나, 스컹크 양배추라는 식물 자체가 원래 모양과 색깔이 어느 정도 기묘한 법이다. 어쩌면 운석에서 나온 어떤 광물 성분이 토양에 스며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머지않아 씻겨 내려갈 일이었다. 발자국이나 겁에 질린 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운석 같은 물체가 떨어지면 시골 마을에서든 당연히 그런 소문이 돌기 마련이다. 미신을 믿는 시골뜨기들은 무엇이든 말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진지한 학자들이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이유는 없었다. 그리하여 기이한 일이 벌어지던 그 모든 날 동안, 교수들은 경멸 섞인 태도로 그곳을 멀리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후, 경찰의 의뢰로 분석용 시료 두 병을 건네받은 교수 중 한 명만이 문득 그 일을 떠올렸다. 그 스컹크 양배추가 피고 있던 기묘한 색채가, 대학 분광기로 관찰했던 운석 파편의 이상한 빛줄기와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또한 그것은 심연에서 온 돌덩이 속에 박혀 있던, 부서지기 쉬운 구체와도 닮아 있었다. 이번 분석 사

건의 시료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기이한 빛줄기를 나타냈으나, 시간이 흐르자 그 성질을 잃고 말았다.

네이험의 농장 주변에서는 나무들이 계절보다 일찍 싹을 틔웠다. 밤이면 나무들은 불길한 기운을 머금은 채 바람에 흔들거렸다. 열다섯 살 난 네이험의 둘째 아들 새디어스는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나무들이 흔들린다고 주장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기 중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드너 일가 전체는 무언가를 몰래 엿듣는 습관이 생겼다. 딱히 무엇을 듣는 것인지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는 소리였지만 말이다. 사실 그들은 무언가를 들으려 애쓰기보다, 의식이 반쯤 흐릿해지는 순간마다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불행하게도 그런 순간은 매주 늘어만 갔고, 결국 "네이험네 식구들이 다 어딘가 이상해졌다"라는 말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른 봄에 피어난 바위떡풀에서도 기이한 색채가 나타났다. 그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띄썩색과는 달랐다. 분명 그와 비슷한 계열이긴 했으나,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전 처음 보는 색이라고 느낄 만큼 낯설었다. 네이험은 꽃 몇 송이를 따서 아침으로 가져가 《가제트》지의 편집장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고관대작은 그 꽃들을 소재로 가벼운 기사나 한 편 써 보낼 뿐이었다. 그는 그 기사에서 시골뜨기들이 품는 어두운 공포를 점잖게 조롱하기까지 했다. 네이험이 그 무던한 도시 사람에게, 이 바위떡풀 주변을 맴도는 거대하고 무성한 붓나비들의 기이한 움직임에 대해 말한 것은 실수였다.

4월이 찾아오자 시골 사람들은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혔다. 네이험의 집을 지나던 길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하더니, 결국 버려지고 말았다. 그다음은 식물들이었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온통 기이한 색깔로 꽃을 피워냈고, 마당과 인접한 목초지의 돌투성이 토양에서는 기괴한 생명체들이 돌아났다. 식물학자라야 겨우 그 식물들을 이 지역의 본래 식생과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큼 생소한 모습이었다. 푸른 풀과 잎사귀를 제외하면, 어디에서도 온전하고 건강한 색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구상의 그 어떤 색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병적인 기본색에서 파생된 듯한 현란하고 무지갯빛 같은 변종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 '더치맨스 브리치스'는 불길한 위협처럼 변해갔고, '블러드루트'는 색채가 뒤틀린 채 오만하게 자라났다. 애미와 가드너 일가는 그 색채들이 어딘가 잊을 수 없는 익숙함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색들이 마치 유성에서 떨어진 부서지기 쉬운 구체와 닮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이험은 10에이커 규모의 목초지와 고지대 밭을 갈고 씨를 뿌렸지만, 집 주변의 땅은 손대지 않았다. 그는 그 땅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임을 알았다. 그저 여름 동안 자라난 기이한 식물들이 토양의 독기를 모두 빨아들여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제 그는 거의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 곁에서 소리를 내며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 기분에도 익숙해졌다. 물론 이웃들이 자신의 집을 피하는 모습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 고통이 더 컸다. 매일 학교에 가는 아들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으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겁을 먹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유난히 예민했던 소년 새디어스는 그 고통을 가장 심하게 겪었다.

5월이 되자 벌레들이 몰려들었다. 네이험의 농장은 웅웅거리는 날갯짓 소리와 기어 다니는 벌레들로 가득한 악몽의 현장이 되었다. 벌레들의 생김새와 움직임은 어딘가 기이했고, 밤에 활동하는 습성 또한 기존의 경험과는 전혀 달랐다. 가드너 가족은 밤마다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나무에 관한 새디어스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가족 모두가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창밖으로 달빛에 비친 단풍나무의 부풀어 오른 가지를 지켜보던 가드너 부인이 그다음으로 그것을 목격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뭇가지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수액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제 자라는 모든 것에는 기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다음 발견을 한 이는 네이험의 가족이 아니었다. 가족들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기괴함에 무뎌져 있었다. 정작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포착한 것은 볼턴에서 온 겁 많은 풍차 판매원이었다. 그날 밤, 그 지역의 전설 따위는 전혀 모른 채 길을 지나던 그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가 아침에 도착해 전한 이야기는 《가제트》지에 짧은 단락으로 실렸다. 네이험을 포함한 인근 농부들이 그 사실을 처음 접한 것도 바로 그 기사에서였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마차 등불도 희미했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누구나 네이험의 농장임을 알 수 있었던 계곡의 어느 농장 주변만큼은 어둠이 덜 짙었다. 풀과 잎사귀, 꽃송이 등 모든 식물 자체에 희미

하지만 분명한 빛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헛간 근처 마당에서 떨어진 빛의 조각 하나가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지금껏 풀밭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다. 집 근처 목초지에서 소들도 자유롭게 풀을 뜯었다. 하지만 5월 말 무렵부터 우유 맛이 변하기 시작했다. 네이힘은 소들을 고지대로 옮겼고, 그 뒤로는 우유 문제가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풀과 잎사귀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푸르던 모든 식물이 회색빛으로 변해갔고, 기이할 정도로 푸석푸석하게 말라 비틀어졌다. 이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애미뿐이었으나, 그의 발길조차 점점 뜸해졌다.

학교마저 방학하자 가드너 일가는 세상과 사실상 단절되었다. 가끔 마을에 불일이 생기면 애미에게 심부름을 맡길 뿐이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기묘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 가드너 부인이 미쳐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그 일은 유성이 떨어진 지 약 1년이 되는 6월에 일어났다. 불쌍한 여인은 공중에 떠다니는 무언가를 보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녀가 횡설수설할 때면 구체적인 명사는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동사와 대명사뿐이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변하고, 파닥거린다는 말뿐이었다. 귀에는 소리라고 하기에 모호한 자극이 찌릿하게 느껴졌다.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었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그녀에

게 달라붙어 있었다. 누군가 그것을 쫓아내야만 했다. 밤이면 그 무엇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벽과 창문이 일렁였다.

네이험은 그녀를 군립 정신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집 안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두었다. 그녀의 표정이 기괴하게 변할 때조차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녀를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새디어스가 그녀가 짓는 기괴한 표정에 기절할 뻔하자, 그는 결국 그녀를 다락방에 가두기로 결심했다.

7월이 되자 그녀는 말문을 닫고 네 발로 기어 다녔다. 그리고 그달이 지나기도 전에 네이험은 기묘한 생각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그는 근처의 식물들도 분명히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일이 있었다. 밤사이 무언가가 말들을 자극했는지, 마구간 안에서 울려 퍼지는 말들의 울음소리와 발길질 소리는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말들을 진정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네이험이 마구간 문을 열자마자, 말들은 겁에 질린 숲속의 사슴처럼 밖으로 떼 지어 달아나 버렸다. 네 마리를 모두 찾아내는 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막상 찾아낸 말들은 이미 쓸모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말들의 정신이 무언가에 의해 망가져 버린 것이다. 결국 네이험은 말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두 사살해야 했다.

네이험은 건초를 나르기 위해 애미 피어스에게서 말을 한 마리 빌려왔으나, 그 말은 도무지 헛간 근처로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말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거나 버티며 울부짖었다. 결국 네이험은 말을 마당으로 몰아넣는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건초를 건초더미 위로 던져 넣기 편하도록 무거운 수레를 헛간 근처까지 끌어다 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 와중에 식물들은 회색빛으로 변하며 푸석푸석하게 말라갔다. 한 때 기묘한 빛깔을 뽐내던 꽃들조차 이제는 회색으로 변해갔고, 열매들은 회색빛을 띠며 작고 맛없게 열렸다. 과꽃과 미역취는 회색빛의 뒤틀린 모습으로 피어났으며, 앞마당의 장미와 백일홍, 접시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불경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결국 네이험의 장남 지나스가 그 꽃들을 모두 베어버렸다. 그 무렵에는 기이하게 부풀어 올랐던 곤충들도 죽어 나갔다. 벌집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던 벌들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새디어스는 9월에 우물을 다녀온 뒤 미쳐버렸다. 양동이를 들고 나갔던 그는 빈손으로 돌아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다. 그러다 때때로 멍청하게 길길거리거나, "저 아래에서 색채들이 움직이고 있어"라며 중얼거리곤 했다. 한 가족에서 두 명이나 미쳐버린 것은 끔찍한 일이었으나, 네이험은 매우 의연하게 대처했다. 그는 아들이 일주일 동안 집안을 뛰어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아들이 비틀거리며 몸을 다치기 시작하자, 결국 어머니의 방 맞은편에 있는 다락방에 그를 가두었다.

잠긴 문 너머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내지르는 비명은 정말이지 끔찍했다. 어린 머윈에게는 더욱 그랬다. 아이는 두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떤 무시무시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믿었다. 머
윈은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해지고 있었다. 가장 친한 놀이 상대였던
형이 방에 갇힌 뒤로, 아이의 불안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거의 동시에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가금류는 회색빛으로
변하더니 아주 빠르게 죽어갔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잘라보면 말라비
틀어져 있고 악취가 진동했다. 돼지들은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더니,
어느 순간부터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당연히 고기는 먹을 수 없게 되었고, 네이험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
했다. 시골 수의사들은 아무도 그의 농장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고,
아침에서 온 도시 수의사조차 속수무책이었다. 돼지들은 죽기도 전에
몸이 회색으로 변하며 푸석푸석해지더니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고, 눈
과 코끝에는 기이한 변형이 일어났다. 오염된 식물을 먹인 적이 없었기
에, 이 현상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다.

다음은 소들에게 차례가 왔다. 소의 특정 부위나 때로는 몸 전체가
기괴할 정도로 쪼그라들거나 압착되었고, 끔찍하게 무너지거나 형체
가 흩어지는 일이 흔히 일어났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돼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몸이 회색으로 변하며 부스
러지기 시작했다. 독살의 가능성도 없었다. 모든 사건이 문이 잠긴, 아
무도 건드리지 않은 외양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들짐승에게 물
려 병이 옮았을 리도 없었다. 지상의 어떤 살아있는 짐승이 단단한 장
애물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분명 자연적인 질병일 터였다. 하지만 어
떤 질병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할 수 없
었다.

수확기가 되었을 때, 농장에는 살아남은 동물이 단 한 마리도 없었다. 가축과 가금류는 모두 죽었고 개들은 도망쳐 버렸기 때문이다. 세 마리뿐이었던 개들은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뒤로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다. 고양이 다섯 마리는 그보다 좀 더 일찍 떠났지만, 당시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쥐가 보이지 않게 된 데다, 가드너 부인만이 그 우아한 고양이들을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 * * *

10월 19일, 네이험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애미의 집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불행한 새디어스가 다락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방식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이험은 농장 뒤편, 울타리가 쳐진 가족 묘지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을 묻었다. 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도, 잠긴 문도 멀쩡했으니 외부에서 침입했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예전 헛간에서 보았던 광경과 흡사했다. 애미와 그의 아내는 충격에 빠진 네이험을 할 수 있는 한 정성껏 위로했지만, 위로하는 내내 몸서리를 쳐야 했다. 가드너 일가와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달라붙어 있는 듯했다. 그가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름 붙일 수도 없고 이름 붙여서도 안 될 미지의 영역에서 불어온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다.

애미는 몹시 망설임 끝에 네이험을 집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 그는 히스테릭하게 흐느끼는 어린 머원을 달래기 위해 애썼다. 지나스는 달랠 필요조차 없었다. 최근 들어 그는 그저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아버지의 말에만 기계적으로 따를 뿐이었다. 애미는 차라리 지나스의 운

명이 훨씬 자비롭다고 생각했다. 이따금 다락방에서 머윈의 비명에 화답하듯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애미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네이험은 아내가 기력이 매우 쇠해졌다고 답했다.

밤이 다가오자 애미는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식물들이 희미한 빛을 내뿜기 시작하고,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무들이 흔들리는 듯한 광경이 펼쳐지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미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지금도 그의 정신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만약 그가 주변의 불길한 징조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분명 완전히 미쳐버렸을 것이다. 황혼이 깔릴 무렵,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미쳐버린 여인의 비명과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 소리가 귓가에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사흘 뒤 이른 아침, 네이험이 애미의 주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집주인인 애미가 자리에 없자, 그는 공포에 질려 숨을 몰아쉬는 피어스 부인을 향해 절박한 이야기를 더듬거리며 쏟아냈다. 이번에는 어린 머윈의 일이었다. 아이가 사라졌다. 밤늦게 물을 길으러 등불과 양동이를 들고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네이험은 며칠 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굴었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에 비명을 질러댔다. 그러다 마당에서 광기 어린 비명이 들려왔지만, 아버지가 문에 다다르기 전에 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아이가 들고 나갔던 등불의 빛도, 아이의 흔적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처음에 네이힘은 등불과 양동이마저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밤새 숲과 들판을 헤매다 새벽녘에 돌아온 그는 우물 근처에서 아주 기이한 것들을 발견했다. 분명 등불이었을 것이 분명한, 짓눌리고 어딘가 녹아내린 듯한 쇳덩어리가 있었다. 그 옆에는 구부러진 양동리와 뒤틀린 철제 테가 반쯤 녹아붙은 채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양동이의 잔해처럼 보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네이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어스 부인은 멍하니 넋을 잃었으며,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애미 역시 아무런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머윈이 사라졌다. 이제 가드너 가문을 멀리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을 비웃음으로 넘기는 아킴의 도시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역시 소용없는 일이었다. 새디어스가 사라지더니, 이제 머윈까지 사라졌다. 무언가가 기어 다니며, 누군가 보고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이힘은 곧 자신도 죽을 것 같았다. 그는 만약 자신이 죽고 나면, 아내와 지나스를 애미가 돌봐주길 간절히 바랐다. 이것은 분명 어떤 종류의 심판임이 틀림없었다. 자신이 아는 한 평생 주님의 길을 곧게 걸어왔기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애미는 이 주 동안 네이힘을 전혀 보지 못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선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가드너의 농장을 찾아갔다. 커다란 굴뚝에서는 연기가 전혀 피어오르지 않았다. 방문객인 애미는 순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농장의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땅에는 회색빛으로 시든 풀과 잎사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벽과 지붕 처마에서는 덩굴들이 부서진 잔해처럼 힘

없이 늘어져 있었다. 앙상한 나무들은 11월의 회색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는데, 마치 악의를 품고 할퀴어대는 듯했다. 애미는 그 나무들이 가지를 기울인 방식조차 무언가 미묘하게 변해버린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네이험은 살아 있었다. 그는 천장이 낮은 부엌에 놓인 침상에 누워 기력이 쇠한 상태였으나, 정신은 또렷하여 지나스에게 간단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 방 안은 죽은 듯이 차가웠다. 애미가 눈에 띄게 몸을 떨자, 네이험은 쉼 목소리로 지나스에게 떨감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실제로 떨감이 절실히 필요했다.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찬바람에 그늘음이 구름처럼 훑날리고 있었고, 땀 뚫린 거대한 벽난로는 불도 없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네이험은 떨감을 더 가져온 덕분에 좀 따뜻해졌느냐고 물었다. 그제야 애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던 마지막 인내심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다. 불행한 농부의 정신은 더 이상의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애미 피어스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나, 사라진 지나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실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정신이 혼미해진 아버지는 그저 "우물 안이야. 그는 우물 속에 있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때 애미의 머릿속에 미쳐버린 아내에 대한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고, 그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다.

"내비 말인가요? 아, 여기 있군요!"

불쌍한 네이힘이 놀라며 대답했다. 애미는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는 소파에 누워 횡설수설하는 네이힘을 뒤로한 채, 문 옆 못에 걸린 열쇠 꾸러미를 챙겨 빼격거리는 계단을 올라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방 안은 매우 비좁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사방 어디에서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네 개의 문 중 단 하나만이 잠겨 있었다. 애미는 가져온 열쇠 꾸러미에서 여러 열쇠를 번갈아 끼워 보았다. 세 번째 열쇠가 딱 들어맞았다. 애미는 서투른 손길로 더듬거린 끝에 낮게 자리 잡은 하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창문은 작고 투박한 나무 창살에 절반쯤 가려져 있어, 실내는 꽤 어두웠다. 넓은 판자로 된 바닥은 애미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악취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일단 다른 방으로 물러나야 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운 뒤에야 그는 다시 발을 들일 수 있었다.

다시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구석에서 어두운 형체가 보였다. 그것을 자세히 확인한 순간, 그는 비명을 내질렀다.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 누군가 창문을 잠시 가린 듯한 기분이 들더니, 곧이어 혐오스러운 증기가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눈앞에서는 기이한 색채들이 춤을 추었다. 만약 눈앞의 공포에 압도되어 감각이 마비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질학자의 망치에 깨졌던 운석 속의 그 구체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봄에 돌아났던 그 기괴한 식물들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눈앞에 마주한 이 신성모독적인 괴물만을 생각할 뿐이었다.

이 괴물은 어린 새디어스와 가축들이 겪었던,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운명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공포스러운 존재가 부서져 내리면서도 아주 느리고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 * * * *

애미는 그 광경에 대해 더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서 구석에 있던 형체는 움직이는 물체로 다시 등장하지는 않았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법이며,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일조차 때로는 가혹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나는 그 다락방에 움직이는 생명체 따위는 남아 있지 않았음을 짐작했다. 만약 그곳에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두었다면, 그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만큼 끔찍한 죄악이었을 것이다. 무던한 성격의 농부가 아니었다면 누구라도 기절하거나 미쳐버렸을 상황이었으나, 애미는 의식을 유지한 채 그 낮은 문을 걸어 나와 저주받은 비밀을 뒤로하고 문을 잠갔다. 이제 남은 일은 네이험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살피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만 했다.

애미 피어스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때 발밑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 소리가 갑자기 멎은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위층의 그 끔찍한 방에서 자신을 스치고 지나갔던 그 축축한 증기를 떠올리며 초조해졌다. 자신의 외침과 발소리가 대체 무엇을 깨운 것일까?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분명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끄는 소리였다. 게다가 악마적이고 불결한 무언가가 달라붙는 듯한, 아주 불쾌하고 끈적끈적한 흡착음까지 들렸다.

공포로 인해 예민해진 감각은 자꾸만 위층에서 보았던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대체 어떤 기괴한 꿈속 세상에 발을 들인 것이란 말인가?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그저 사방이 막힌 계단의 검은 곡선 앞에 서서 몸을 떨 뿐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사소한 것들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기분 나쁜 소리, 곧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공포스러운 예감, 짙은 어둠, 그리고 가파르고 좁은 계단까지. 무엇보다도—하늘이시여!—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 구조물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계단과 벽면, 드러난 서까래와 들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러했다.

그때 밖에서 애미의 말이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마차가 통제력을 잃고 거칠게 질주하는 요란한 소리가 뒤따랐다. 순식간에 말과 마차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달아나 버렸고, 어두운 계단에 홀로 남겨진 겁에 질린 사내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밖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액체가 튀는 듯한 소리, 마치 물이 튀는 것 같은 소리였다. 분명 우물 쪽이었을 것이다. 우물 근처에 히로를 묶지 않은 채 두었으니, 마차 바퀴가 우물 테두리를 스치며 돌 하나를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도 끔찍할 정도로 오래된 나무 벽면에서는 창백한 인광이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다. 세상에, 이 집은 대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집의 대부분은 1700년 이전에 지어진 것이었다.

아래층 바닥에서 무언가 굽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들려왔다. 애미는 다락방에서 무언가 용도가 있어 집어 들었던 묵직한 막대기를 왼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으며 계단을 다 내려갔고, 주방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주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가 찾던 것이 더 이상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애미를 맞이하러 직접 움직인 듯 했고, 기괴한 방식이긴 하나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것이 스스로 기어 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힘에 의해 끌려온 것인지 애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죽음이 그것을 덮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모든 일은 지난 30분 사이에 일어났지만, 무너져 내리고 회색으로 변하며 분해되는 과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있었다. 그것은 끔찍할 정도로 부서지기 쉬운 상태였으며, 마른 파편들이 비늘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애미는 그것을 차마 건드리지 못한 채, 한때 얼굴이었을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대체 뭐였나, 네이험—그게 대체 무엇이었던 말일세!" 그가 속삭였다. 그러자 갈라지고 부풀어 오른 입술이 겨우 바스락거리며 마지막 대답을 내뱉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 색채가... 타올라... 차갑고 축축한 데, 타오른단 말이야... 우물 속에 살고 있었어... 내가 봤어... 일종의 연기 같은 거였지... 지난봄에 본 꽃들 같았어... 밤이면 우물이 빛났고... 새디어스랑 머윈, 그리고 지나스까지... 모든 게 살아 움직였어...

모든 것에서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지... 그 돌 속에... 분명 그 돌에서 들어온 거야... 그 돌이 이곳 전체를 중독시켰어... 그게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어... 대학에서 온 사람들이 파낸 그 둥근 물체 말이야... 그들이 돌을 부셨는데... 그게 바로 그 색채였어... 꽃이나 식물들처럼, 완전히 똑같은 색이었어... 분명 더 많을 거야... 씨앗들...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어... 이번 주에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 분명 지나스에게서 힘을 얻었을 거야... 덩치도 크고 생기가 넘치던 아이였는데... 그건 정신을 짓누르고, 그러고는 널 낚아채... 널 태워버린다고... 우물물 속에서 말이야... 네 말이 맞았어... 사악한 물이었어... 지나스는 우물에서 돌아오지 못했어... 도망칠 수가 없어...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야... 무언가 오고 있다는 건 알지만, 소용없어... 지나스가 끌려가는 걸 몇 번이고 봤단 말이야... 내비는 어디 있니, 애미? ... 머리가 아파... 내비한테 밥을 준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조심하지 않으면 내비도 당하고 말 거야... 그저 색채일 뿐인데... 밤이 되면 내비 얼굴에도 가끔 그 색이 나타나곤 해... 그러면 타오르면서 빨아들여... 그건 이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온 거야... 교수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지... 그 사람 말이 맞았어... 조심해, 애미, 그게 더 큰 일을 저지를 거야... 생기를 전부 빨아먹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말을 내뱉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애미는 남은 잔해 위로 붉은 체크무늬 식탁보를 덮어버리고는, 뒷문을 통해 들판으로 비틀거리며 뛰쳐나갔다. 그는 10에이커 규모의 목초지가 있는 언덕을 기어오른 뒤, 북쪽 길과 숲을 지나 집으로 비틀비틀 돌아왔다.

그는 말이 겁에 질려 도망쳤던 그 우물을 차마 지나갈 수 없었다. 창 밖으로 우물을 들여다보았을 때, 테두리에서 빠진 돌 하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동치던 마차가 결국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 파동은 마차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 불쌍한 네이험을 유린하고 난 뒤, 우물 속으로 스며든 바로 그 무언가 말이다.

애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말과 마차는 이미 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 바람에 아내는 극심한 불안에 빠져 있었다. 애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내를 안심시킨 뒤, 곧장 아컴으로 향했다. 그는 당국에 가드너 일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늘어놓지 않았다. 다만 네이험과 내비가 죽었다는 사실과, 이미 알려진 새디어스의 죽음을 언급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가축들을 죽게 만든 그 기이한 병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머윈과 지나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경찰서에서는 집요한 질문이 쏟아졌다. 결국 애미는 세 명의 경찰관을 데리고 가드너 농장으로 향해야 했다. 검시관과 법의학자, 그리고 병든 가축들을 돌봤던 수의사까지 동행했다. 애미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오후 시간은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그는 그 저주받은 땅에 어둠이 내리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여섯 명의 남자는 애미의 마차를 뒤따라 민주주의식 짐마차를 몰고 나갔다. 그들은 오후 4시쯤 전염병이 창궐한 그 농가에 도착했다. 수사

관들은 끔찍한 광경을 접하는 데 익숙한 이들이었으나, 다락방에서 발견된 것과 아래층 바닥의 붉은 체크무늬 식탁보 아래에 놓인 것을 보고는 모두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색빛 황량함에 싸인 농가의 전체적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으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져 가던 그 두 물체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했다. 누구도 그것들을 오래 쳐다볼 수 없었다. 검시관조차 조사할 만한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물론 시료를 분석할 수는 있었기에, 그는 시료를 채취하는 데 몰두했다.

여기서부터 기이한 후일담이 시작된다. 채취한 먼지를 담은 두 개의 유리병이 미스카토닉 대학 실험실로 옮겨진 뒤, 그곳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분광기로 관찰한 결과, 두 시료 모두에서 정체불명의 스펙트럼이 방출되었다. 그 스펙트럼 속에 나타난 수많은 난해한 띠들은 작년에 그 기묘한 유성이 남겼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이 스펙트럼을 내뿜던 성질은 한 달 만에 사라졌고, 그 이후의 먼지는 대부분 알칼리성 인산염과 탄산염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애미는 만약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당장 무엇이랄도 하려 했다면, 우물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기에 그는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구덩이 옆의 돌로 된 테두리를 불안한 눈길로 자꾸만 훑쳐보았다. 결국 형사가 추궁하자, 그는 네이험이 우물 아래 무언가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털어놓

았다. 그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네이험은 머윈이나 지나스를 위해 우물을 뒤져볼 생각조차 감히 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 일이 있는 후, 사람들은 즉시 우물을 비우고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애미는 몸을 떨며 그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악취 나는 물이 양동이째로 계속해서 끌어 올려졌고, 젖어 있는 바닥 위로 사방에 튀어 올랐다. 사람들은 그 액체의 냄새에 혐오감을 느끼며 코를 킁킁거렸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드러나는 악취를 견디지 못해 코를 틀어쥐기까지 했다. 다행히 우물 속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 작업은 우려했던 것만큼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구태여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머윈과 지나스 두 사람 모두 그곳에 있었다. 비록 형체는 대부분 해골에 가까운 잔해로 남았을지라도 말이다. 그 곁에는 비슷한 상태의 작은 사슴 한 마리와 커다란 개 한 마리,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동물들의 뼈가 흩어져 있었다. 바닥에 깔린 진흙과 점액질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구멍이 숭숭 뚫린 채 부글거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간 한 남자가 긴 장대를 찔러 넣어 보았으나, 장대는 바닥의 진흙 속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끝없이 가라앉을 뿐이었다.

어느덧 황혼이 내려앉았고, 집 안에서 랜턴들이 들고 나왔다. 우물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사람들은 모두 실내로 들어갔다. 밖에는 창백한 반달의 빛이 간헐적으로 비치며 회색빛 황량함을 힘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오래된 거실에 모여 앉아 회의를 시작했다.

남자들은 이 모든 상황에 솔직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기이하게 변해버린 식물들, 가축과 사람을 덮친 정체 모를 질병, 그리고 오염된 우물 속에서 머원과 지나스가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설득력 있는 공통점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소문은 이미 들었으나,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는 믿기 어려웠다. 유성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자란 것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과 동물들이 병에 걸린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우물물 때문일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물을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대체 어떤 광기가 두 소년을 우물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말인가? 두 소년의 행동은 너무나 흡사했다. 게다가 시신 조각들을 통해 그들 모두가 회색빛의 부서져 내리는 죽음을 겪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도대체 왜 모든 것이 그토록 회색빛으로 변하고, 바스러져 가는 것일까?

마당이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있던 검시관이 우물 주변에서 번져 나오는 빛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 밤은 이미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혐오스러운 대지 전체가 간헐적으로 비치는 달빛 그 이상의 무언가로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빛은 분명하고도 뚜렷한 무언가였다. 그것은 마치 서치라이트의 부드러운 광선처럼 검은 구덩이 속에서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물을 다 퍼낸 뒤 남은 작은 웅덩이들 위로 둔탁한 빛의 잔영이 어른거렸다.

그 빛은 기이한 색을 띠고 있었다. 사내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을 때, 애미 피어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이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안개 같은 빛줄기가 그에게는 결코 낯선 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에 이 색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는 2년 전 여름, 운석 속에 들어있던 불쾌하고 부서지기 쉬운 구체 안에서 그 색을 보았다. 봄철에 미친 듯이 자라나던 식물들 속에서도 그 색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이름 모를 일들이 벌어졌던 그 끔찍한 다락방의 작은 창살 창문 너머로도 그 색을 아주 잠깐 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빛이 번쩍였고, 축축하고 혐오스러운 증기가 그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불쌍한 네이험 가드너는 그 색채의 무언가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 네이험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말했다. 그 색이 운석 속의 구체나 식물들과 같았다고 말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마당에서 누군가 도망치듯 뛰쳐나갔고 우물 속으로 무언가 푹덩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제 저 우물은 그 악마 같은 빛깔의 창백하고도 음험한 광선을 밤의 어둠 속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애미 피어스가 본질적인 과학적 의문을 품었다는 사실은, 그의 정신이 얼마나 기민하게 깨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낮 동안 아침 하늘로 난 창 너머로 언뜻 보았던 증기에서 느꼈던 인상과, 검게 타버린 황야를 배경으로 인광을 내뿜는 안개처럼 보였던 밤의 숨결에서 느꼈던 인상이 왜 똑같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옳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에도 어긋났다. 그는 병마에 침식당한 친구가 남긴 그 끔찍한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다.

"그건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곳에서 온 거야...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었지......"

길가에 시든 묘목 두 그루에 묶어둔 말 세 마리가 일제히 히힃거리며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마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문을 향해 몸을 움직였으나, 애미 피어스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거기 나가면 안 돼." 애미가 속삭였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네이험 말로는 우물 속에 뭔가가 살면서 사람의 생명력을 빨아먹는데. 1년 전 6월에 떨어진 운석에서 봤던 그 둥근 구체 같은 것에서 자라난 놈이라고 하더군. 빨아들이고 태워버린대. 저기 밖에서 번쩍이는 빛처럼, 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일렁이는 색채의 구름 같은 존재 말이야. 네이험은 그게 살아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며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지난주에도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 작년에 대학 사람들이 말했던 운석처럼, 분명 저 먼 하늘 너머에서 온 무언가일 거야. 그놈이 만들어진 방식이나 움직이는 방식은 신이 만든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달라. 그건 저 너머에서 온 무언가야."

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자, 사람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멈춰 섰다. 마차에 매인 말들은 점점 더 미친 듯이 발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참으로 끔찍한 순간이었다. 저주받은 고택 자체에 서린 공포, 뒤편 헛간에 널브러진 네 구의 괴기스러운 시체들—집 안에서

나온 두 구와 우물에서 나온 두 구—, 그리고 눈앞의 끈적한 심연으로부터 솟구치는 정체불명의 불경한 무지갯빛 줄기까지.

애미 피어스는 충동적으로 마부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락방에서 그 색채를 띤 증기가 몸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자신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잠시 잊은 탓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무엇이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 너머에서 온 그 신성모독적인 존재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 인간을 해치지지는 않았으나,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는 알 수 없다. 반쯤 구름에 가려진 달빛 아래서, 그 존재는 점점 힘을 키우며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므로.

* * * * *

그때 갑자기, 창가에 서 있던 형사 중 한 명이 짧고 날카로운 숨을 들이켰다. 다른 이들도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그의 시선을 따라 위쪽을 향했다. 그의 방황하던 눈길이 갑자기 멈춰 선 바로 그 지점을 말이다.

말은 필요 없었다. 시골 마을의 소문거리로 떠돌던 이야기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속삭였던 바로 그 존재 때문에, 아침에서는 그 기이한 날들에 대해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날 저녁, 바람 한 점 없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두어야겠다. 조금 뒤에 바람이 불긴 했으나,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

다. 회색빛으로 말라 비틀어진 채 남아 있던 갖의 마른 끝자락도, 멈춰선 민주주의 마차의 지붕 가장자리도 미동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그 팽팽하고 신성 모독적인 정적 속에서, 마당에 서 있는 나무들의 높고 앙상한 가지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가지들은 병적으로, 경련하듯 움찔거렸다.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처럼 달빛 어린 구름을 향해 손톱을 휘둘렀다. 검은 뿌리 아래에서 꿈틀대며 발버둥 치는 지하의 공포와, 형체 없는 어떤 끈으로 연결된 듯이, 가지들은 해로운 공기 속을 무력하게 굽어댔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다. 그때 더 짙은 어둠의 구름이 달을 가렸고, 나무줄기를 움켜쥔 듯한 나뭇가지의 실루엣도 잠시 사라졌다. 그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비명이 터져 나왔다. 경외감에 짓눌려 억눌린 소리였으나, 모두의 목소리는 거칠고 비슷했다. 실루엣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층 더 깊은 어둠이 몰려온 찰나, 지켜보던 이들은 나무 꼭대기 높이에서 꿈틀거리는 수천 개의 작은 빛줄기를 보았다. 그 빛은 희미하고 불경한 광채를 띠며 나뭇가지 끝마다 맺혀 있었다. 마치 성 엘모의 불꽃 같기도 했고, 오순절에 사도들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던 불꽃 같기도 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빛이 만들어낸 괴기스러운 별자리였다. 저주받은 늪 위에서 시체 즙을 먹고 자란 반딧불이 떼가 지옥의 춤을 추듯 뒤엉켜 있는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 색채는 애미 피어스가 이미 알아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침입자의 색이었다. 그사이 우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광은 점점 더 밝아졌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식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형상화할 수 없는 파멸

과 기이함의 감각이 휘몰아쳤다. 빛은 더 이상 단순히 '비치는' 것이 아니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색채의 흐름이 우물을 빠져나와 하늘을 향해 곧장 흘러 들어가는 듯했다.

... 그리고 어둠이 더욱 깊게 내려앉은 그 공포스러운 순간, 지켜보던 이들은 나무 꼭대기 높이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희미하고 불경한 빛을 내뿜는 수천 개의 작은 점들이 성 엘모의 불꽃처럼 나뭇가지마다 매달려 있었다. 그사이 우물에서 솟구치는 인광의 줄기는 점점 더 밝아졌고, 몸을 웅크린 사내들의 마음속에는 파멸의 예감과 기이한 불길함이 차올랐다. 빛은 더 이상 단순히 뿜어져 나오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색채의 형체 없는 줄기가 우물을 벗어나 하늘을 향해 곧장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았다.

수의사는 몸을 떨며 앞문으로 걸어가 묵직한 보조 잠금장치를 걸었다. 애미 역시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나무들이 점점 더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손짓과 몸짓으로 겨우 신호를 보내야 했다. 말들이 울부짖으며 발을 구르는 소리는 이제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낡은 집 안에 모인 이들 중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보상을 준다 해도 밖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무들의 빛은 더욱 강해졌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하늘을 향해 곧게 뻗으려는 듯 위로 치솟았다. 이제는 우물 펌프의 나무 기둥마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때 경찰관이 돌

담 서쪽 근처에 있는 나무 창고와 벌통들을 멍하니 가리켰다. 그곳들 역시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만 방문객들이 묶어둔 마차들은 아직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였다.

그때 길 위에서 거친 소동과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애미가 더 잘 보기 위해 등불을 끄자, 그들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쳐 날뛰는 회색 말 한 쌍이 어린 나무를 들이받아 부러뜨리고는, 데모크랫 마차를 끌고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충격적인 소식은 사람들의 입을 열게 만들었고, 여기저기서 당혹스러운 속삭임이 오갔다. "이 근처에 있던 유기물이라면 무엇이든 다 잠식하고 있어." 검시관이 중얼거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물 속에 들어갔던 남자가 자신의 긴 장대가 형체 없는 무언가를 휘저었던 것 같다는 암시를 던졌다. "끔찍했소." 그가 덧붙였다. "바닥 같은 건 아예 없었던 말이오. 그저 진흙과 거품뿐이었고, 그 아래에 무언가 도사리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지."

애미 피어스의 말은 형체도 없이 흩어졌다. 밖의 도로에서는 그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 발을 구르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그건 그 돌에서 왔어. 거기서 아래로 퍼져 나갔지. 살아있는 건 죄다 집어삼켰어. 정신과 육체까지 전부 다 먹어 치웠단 말 이야. 새디어스와 머윈, 지나스와 내비까지... 네이험이 마지막이었지. 다들 그 물을 마셨어. 그 물은 그들을 먹고 힘을 키웠어. 저 너머, 이곳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사는 곳에서 온 거야. 이제는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어."

정체 모를 색채의 기둥이 갑자기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은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내며 일렁였는데, 지켜보던 이들마다 나중에 서로 다르게 묘사할 만큼 그 형태가 기묘했다. 바로 그때, 밧줄에 묶여 있던 불쌍한 히로가 비명을 내질렀다. 그 소리는 전에도 후에도, 그 어떤 말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의 울음소리였다. 낮은 천장의 거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를 틀어막았다. 애미 피어스는 공포와 구역질을 느끼며 창가에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애미가 다시 창밖을 보았을 때, 불운한 짐승은 부서진 마차 축 사이, 달빛이 비치는 땅 위에 미동도 없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히로의 마지막 모습은 그것이었다. 다음 날 그를 매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은 없었다. 거의 그 순간, 한 형사가 소리 없이 손짓하며 바로 그 방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등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광이 방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인광은 누더기 양탄자가 덮이지 않은 넓은 판자 바닥 위에서 빛났고, 작은 유리창틀 위로 어른거렸다. 빛은 노출된 기둥을 타고 위아래로 흘러갔으며, 선반과 벽난로 주변에서 번뜩였다. 나아가 문과 가구들마저 그 빛에 물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침내 모두가 깨달았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반드시 이 집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애미는 뒷문을 가리키며 들판을 가로질러 10에이커 규모의 목초지로 이어지는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마치 꿈을 꾸듯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높은 지대에 올라 멀리 떨어질 때까지, 누구도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차라리 이 길이 다행이었다. 만약 우물 쪽인 앞길로 갔더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빛을 내뿜는 헛간과 창고들, 그리고 뒤틀린 악마의 형상을 한 과수원 나무들을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뭇가지들이 높은 곳에서나마 제멋대로 뒤틀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채프먼 개울 위의 소박한 나무다리를 건널 무렵, 달은 아주 검은 구름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 뒤로 탁 트인 초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앞을 더듬으며 나아가야 했다.

* * * * *

그들이 계곡을 돌아 멀리 아래쪽에 자리 잡은 가드너 농가를 바라보았을 때, 눈앞에는 공포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농장 전체가 정체를 숨긴 채로 번뜩이고 있었다. 나무와 건물은 물론, 치명적인 회색빛으로 바스라지기 전의 풀과 초목들까지도 온통 그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마치 불결한 불꽃의 혀를 머금은 채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집과 헛간, 창고의 마룻대 위로는 그 괴이한 불꽃이 일렁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퓨젤리의 환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이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은 형체도 없이 빛나는 무질서한 광채였다. 우물에서 솟아오른 그 기묘한 독액은 차원을 알 수 없는 무지갯빛을 띠며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요동치고, 감각하며, 넘실거리고, 뻗어 나가

고, 번뜩이며, 치솟았다. 우주적이고도 생경한 색채를 내뿜으며, 악의적으로 부글거리고 있었다.

그때 예고도 없이, 그 끔찍한 것이 로켓이나 유성처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 궤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누군가 숨을 들이켜거나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것은 구름 사이에 뚫린 기묘할 정도로 매끄럽고 둥근 구멍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광경을 본 이라면 누구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애미 피어스는 백조자리의 별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중에서도 데네브가 유독 반짝이고 있었고, 그곳은 정체를 몰라 그 색채가 은하수 속으로 녹아든 곳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계곡에서 들려온 무언가 타닥거리는 소리에 그의 시선은 급히 땅으로 향했다.

그것은 소문과는 달랐다. 폭발이 아니었다. 일행 중 많은 이들이 장담했던 요란한 폭발음 대신, 그저 나무가 찢어지고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저주받은 그 농장에서, 열병에 걸린 듯한 만화경 같은 찰나의 순간에 비정상적인 불꽃과 물질이 분출되며 눈부신 대재앙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목격한 소수의 사람들은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였다. 우주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괴하고 환상적인 색채의 파편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천공을 향해 들이쳤다. 그 파편들은 사라져 버린 거대한 병적 존재를 뒤쫓듯 빠르게 닫히는 증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1초도 지나지 않아 함께 자취를 감췄다.

뒤편과 발아래에는 사람들이 감히 돌아보지 못할 어둠만이 깔려 있었다. 사방에서는 성간 우주의 검고 차가운 돌풍이 휩쓸고 내려오는 듯한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바람은 미친 듯한 우주적 광기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들판을 채찍질하고 숲을 뒤틀어 놓았다. 떨고 있는 일행은 곧 깨달았다. 달이 떠올라 네이험의 농장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일곱 명의 남자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어떤 가설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몸을 떨며 북쪽 길을 따라 아침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다. 애미는 다른 이들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다. 그는 마을로 곧장 가지 말고 자기 집 주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황량한 바람이 몰아치는 숲을 지나 큰길에 있는 집까지 혼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은 무사했지만 자신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앞으로 수년 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마음을 짓누르는 공포에 영원히 짓눌리고 말았다.

폭풍이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다른 목격자들이 묵묵히 길을 향해 발을 옮길 때, 애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불행한 친구를 품어주었던, 방금 전까지 황량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그 계곡을 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재앙이 닥친 그곳에서 무언가가 힘없이 솟아올랐다가, 거대하고 형체 없는 공포가 하늘로 쏘아 올려졌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색채였다.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색도, 하늘에 존재하는 색도 아니었다. 애미는 그 색채를 알아차렸고, 그 희미한 잔재가 여전히 저 아래 우물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애미는 결코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애미는 다시는 그곳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지 벌써 44년이 흘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곳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조성될 저수지가 그곳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리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지나쳤던 그 버려진 우물 입구 주변에서, 햇빛의 색깔이 기묘하게 변하던 그 광경이 여전히 불쾌하기 때문이다. 저수지의 물이 언제나 아주 깊었으면 좋겠다. 그렇다 해도 나는 결코 그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아컴 근처에는 발을 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애미와 함께 있었던 세 명의 사내들은 다음 날 아침, 대낮의 빛 아래에서 폐허를 확인하려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에 온전한 폐허란 없었다. 그저 굴뚝의 벽돌 조각과 지하실의 돌덩이들, 여기저기 흩어진 광물과 금속 찌꺼기, 그리고 그 사악한 우물의 테두리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들이 끌어다 묻어준 애미의 죽은 말과, 곧 돌려준 마차를 제외하면, 한때 생명이 깃들어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다.

그 자리에는 먼지 날리는 회색빛의 기괴한 황무지 4에이커만이 남았고, 그 이후로 그곳에선 그 무엇도 자라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 땅은 마치 산과 들에 산성 물질이 쏟아져 내려 거대한 얼룩을 남긴 것

처럼 하늘을 향해 뺨 뚫린 채 펼쳐져 있다. 마을 사람들의 괴담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곳을 훑쳐본 소수의 사람들은 그 땅을 '저주받은 황야'라고 불렀다.

시골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기묘하다. 만약 도시 사람들이나 대학의 화학자들이 그 버려진 우물물, 혹은 바람이 불어도 좀처럼 흩어지지 않는 그 회색 먼지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려 들었다면, 이야기는 훨씬 더 기괴해졌을지도 모른다. 식물학자들 또한 그곳 주변에서 자라나는 왜소한 식물들을 연구해야 한다. 그 연구가 이 지역의 믿음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병충해가 조금씩, 어쩌면 일년에 겨우 1인치 정도씩 퍼져나가고 있다고 믿는다.

봄이 되면 인근 풀밭의 색깔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말들이 들려온다. 겨울철 얇게 쌓인 눈 위에는 야생 동물들이 남긴 기묘한 발자국이 찍히기도 한다. 저주받은 황야에는 다른 곳만큼 눈이 두껍게 쌓이지 않는 듯하다. 자동차 시대에 접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말들은 이 고요한 계곡에 들어서면 겁에 질려 날뛰다. 사냥꾼들 역시 그 회색빛 먼지가 흩뿌려진 곳 근처에서는 사냥개를 온전히 믿지 못한다.

정신적인 영향 또한 매우 해롭다고들 한다. 네이험이 사라진 뒤 몇 년 동안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고, 그들은 늘 그곳을 벗어날 의지조차 상실한 채 머물러 있었다. 결국 정신력이 강한 이들은 모두 그 지역을 떠났고, 무너져가는 옛 농가에 남으려 애쓴 이들은 외지인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오래 버티지 못했다. 속삭이는 마법에 관

한 그들의 기괴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어떤 통찰을 얻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들은 밤마다 꾸는 꿈이 그 기괴한 땅에서 너무나 끔찍하다고 항변한다. 사실 그 어두운 영역의 생김새만 보더라도 불길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 깊은 협곡을 지나가는 여행자 중 누구도 기묘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은 이가 없으며, 화가들 또한 그 울창한 숲을 그릴 때면 몸서리를 친다. 그 숲의 신비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존재들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애미 피어스가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 홀로 산책하며 느꼈던 그 감각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황혼이 내릴 무렵, 나는 막연하게나마 구름이 좀 끼기를 바랐다. 머리 위로 펼쳐진 깊고 아득한 하늘의 빈 공간을 마주할 때면, 내 영혼 속으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내 의견을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그게 전부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애미 피어스뿐이었다. 아침 사람들은 그 기괴했던 시절에 대해 입을 열려 하지 않으며, 운석과 그 색채를 띤 구체를 목격했던 세 명의 교수도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분명 다른 구체들도 더 있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어떤 구체는 스스로 영양을 섭취하며 탈출했을 것이고, 아마 다른 하나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리라.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여전히 우물 밑에 있을 것이다. 그 독기 어린 구렁텅이 너머로 보았던 햇빛이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병충해가 일 년에 겨우 1인치씩 번져 나간다고 말한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자라나거나 영양을 섭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 어떤 악마의 새끼가 있든 간에, 그것은 분명 무언가에 묶여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순식간에 퍼져 나갔을 테니까.

허공을 활퀴듯 뻗어 있는 저 나무들의 뿌리에 그것이 매달려 있는 것일까? 요즘 아침에서 떠도는 괴담 중에는, 밤마다 기괴하게 빛나며 움직이는 비대한 참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다. 물질의 관점에서 본다면 애미가 묘사한 그것을 가스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스는 우리 우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천문대의 망원경이나 사진 판에 포착되는, 저 멀리 빛나는 세계나 태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천문학자들이 그 움직임과 크기를 측정하거나, 혹은 너무 거대하여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저 하늘의 숨결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우주에서 온 색채였다. 우리가 아는 자연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형체조차 없는 무한한 영역에서 날아온 끔찍한 전령이었다. 그 영역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킨다. 광기에 사로잡힌 우리의 눈앞에, 그 영역이 열어젖힌 우주 너머의 검은 심연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망연자실할 뿐이다.

애미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그의 이야기가 그저 광기 어린 망상에 불과하다고도 보지 않는다. 그 유성에는 무언가 끔찍한 것이 실려 이 언덕

과 계곡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끄찍한 무언가는—그것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다.

아침 저수지 공사가 시작되어 물이 차오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전까지 애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는 그 존재를 너무나 가까이서 목격했다.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교활했다. 대체 왜 그는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네이험이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말들을 애미는 어찌 그리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일까. "벗어날 수가 없어... 끌어당긴다니까... 뭔가가 오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소용이 없어..."

애미는 참으로 선량한 노인이다. 저수지 공사단이 작업을 시작하면, 수석 엔지니어에게 편지를 써서 애미를 각별히 살피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요즘 들어 내 잠을 자꾸만 뒤흔드는 그 회색빛의 뒤틀리고 부서질 듯한 괴물 같은 형상으로 그가 변해버렸다고는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다.

끝